

#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 행안부·권익위, 7월 한 달간 계도기간 1인 1일 3회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없앤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17일 시행된 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343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 시행돼 왔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지역 간 혼선을 부추기고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다. 위반자에게 계도장을 발부하되,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지는 셈이다.

또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했다. 그간 일부

지자체의 경우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1명이 하루 3회 등으로 제한하던 신고 횟수는 폐지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무안 주민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찬성' 37.9%...지역발전 기대

### 세계일보, 한국갤럽 의뢰 무안군민 803명 여론조사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전남 무안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세계일보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일 무안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고 군공항을 무안군으로 이전하는 것

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민간 공항 통합과 군 공항 이전을 함께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로 조사됐다. 이는 주민 10명 중 4명이 통합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또 '민간공항만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이 35.9%로 뒤를 이었다.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모두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고, '군공항만 이전해

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민간공항 통합을 전제로 한 군공항 무안군 이전을 원하는 응답자는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47.2%, 43.5%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30.8%가 '이전 지역 지원 사업에 따른 지역 발전을 꼽았다.'

다음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22.5%, '광주 민간공항만 받고 군공항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

라고 생각해서'가 18.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로 '생활소음 피해'가 6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탄약고 등 위험 시설 이전에 따른 안전 우려' 16.2%, '농축수산업 피해 우려'가 15.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로 응답률은 19.2%다.

## "중국 좋다" 한국인 10명 중 1명... "미국이 좋다" 8명으로 파악

### 한국·필리핀·싱가포르 국민 각 500명 대상 조사

중국에 우호적인 견해를 가진 한국인은 10명 중 1명이었지만, 미국이 좋다는 한국인은 10명 중 8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13일(한국시간) 미국 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미·중 경쟁과 관련해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3국의 18~65세 국민 각 500명씩 모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3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회원국이자,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이다.

설문에 참여한 3국은 미·중 호감도 면에서 모두 미국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는 한국 82.6%, 필리핀 81.6%, 싱가포르 48% 순이었다.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는 한국 14.8%, 필리핀 30.2%, 싱가포르 56%였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호도 정도가 가장 큰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가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했다. 이와 함께 3국 응답자의 69%가 미국 정부가 자국에 모범이 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또 76%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영향력이 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고 답한 데 비해 중국에 대해서는 41%만이 이같이 답했다.

3국 설문 응답자의 90%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대립에 진입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소 걱정한다'가 66%, '매우 걱정한다'가 24%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2%가 미·중 경쟁 심화의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81%), 한국(67%), 싱가포르(38%) 순으로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



'생존수영 배워요' 14일 경기도 오산시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받고 있다.

## 6명과 바람 피운 부인 "남편이 유책 배우자"...소송 중 판 여자 만난 남편

여러 남성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여성을 만났다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30대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가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부터 사사건건 부딪혔다"고 말문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다툼이 잦아 지면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가 결혼 직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6명이었다고 한다.

A씨는 바로 아내와 외도 상대에게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이 닿았고 위로받던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아내는 제가 외도했으니 유책배우자이고,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다"며 "먼저 바람피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유책배우자냐.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유해진 변호사는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쪽의 잘못이 있어야만 이혼이 된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아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히 때문에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오랜 기간 아내와 남처럼 생활해 온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했다.



### 여수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직장동호회와 봉사활동 펼쳐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전남소방 직장동호회(성나회)와 함께 울촌면 삼산마을을 찾아 노후 방충망 교체, 이불세탁,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봉사활동을 하었다고 밝혔다.



### 완도소방, 2023년 긴급구조·구급대응 종합훈련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대형재난 등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및 구급대응훈련을 완도화 제3부두에서 지난 9일 실시했다.



### 화순경찰, 지역치안 협력 위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회의

화순경찰서(서장 송기주)는 최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화순군 자치경찰실무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 광양경찰, '치매 극복 선도기관' 지정 현판식 개최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최근 치매 파트너 현장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이수,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되어 광양경찰서 본관 1층 입구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해양경찰교육원, 청년인턴 환영식 개최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지난 12일 오전 10층 대회의실에서 청년인턴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빛원자력본부, 양파 수확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시행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최현규)는 지난 8일 흥농읍 소재 농가에서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